東大時報

發行人 白性郁
編輯人 崔鳳守
印刷人

發行所 서울市中區淸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 東大時報
電話③ 1685·1687·6901

(週刊)
一部 定價 五十拾圓 一月 百貳圓

妄證求敗 妄證勝人 致敗咎自己不正 自己行世 不正而怨諸人 結怨於人 以托治士 —法句經—

숨가쁜 學界

今明間完全히 끝날듯

新任學會長들의 活動에 期待

지난 十日을 前後해서 本校에서는 숨가쁜 學會長選擧를 施行하고 있다 九月末日로 各敎幹部의 任期가 끝나고 十月一日부터 第二學期가 始作되면서부터 總委員長을 비롯한 各大學運營委員長 및 各敎學年代議員選擧가 끝나자이번에는 各學會의 發展을 위해서 노력할 各 學會任員改選을 實施하는것이다.

지난十日 오後一時半부터 市內양춘다방에서 성대히 開催되었다 東國同門會가 主催한 同出판記念會는 多數의 同門과 國文學者들이參席한 가운데 國語國文學會 李相寶氏의 司會로 始作되었다

同記念會는 國文科梁炳奎 主任敎授에 依한 「두解釋보상節」 저者李東林敎授의 소개가있은다음 各界各層에서 보내온 화분 증呈이있었다 이어서 本校 崔鳳守文理科大學長을 비롯하여 서울大學校 李崇寧敎授 國語國文學會總務 남강우氏등의 熱意에찬 축사가있었는데이어 李敎授의 답사가있었다 同記念會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同記念會에 뒤이어 約三十分間의 懇談會가 있었으며 간단한 餞別을 끝으로 이날의 출판記念會는 막을내렸다

李敎授出版記念會

十日陽春茶房에서盛況

校內音樂鑑賞會

本校 佛敎學會 기원학사 主催로 第一回校內음악감상회를 가진다 同감상회는 十三日(화)下오四時 敎內中강당에서 開催하는바 多數學生들의 參加를바라고있다 한편 本校에서도 同음악감상회에 關해서는 萬般의 設備가 구비되었다고 土曜日 앞으로는 每週 定이라한다 (사진은화분증정광경)

學術論文當選者發表

「大昌高」全聲煥君

既報한바있는 本大學校 經濟學연구會(經濟學科 商學科 經營學科)主催로募집한 全國男女高等學生 學術論文當選者 同論文의 審査要領은 一、二、三次로 나누워서 一次에 二百餘通에 達하 總應募數에서 十五通을 選定하고 二次에 六通을 選定하여 最後로 二次에서 採點形式을 擇하여 (十三日)本校中강당에서 發表 決定 그런데 同論文의 當選者의 施상式은 내일 열릴것인데 入상者의名單은 다음과같다.

◎認長상…金성환 ▲北예천郡 大昌高等學校

◎大學院長상…徐英明 ▲北安東郡 慶安高等學校

◎法政大學長상…朴容雲 ▲서울 ▲東林高等學校

◎文理大學長상…李相寶 ▲서울 ▲東國大學校

◎우수상…李春善 ▲市內 大京商業高等學校

◎우수상…孫수현 ▲市內 京기高等學校

◎우수상…선義子 ▲市內 東丘女子商業高等學校

◎우수상…李春善 ▲市內 東國大學校

◎우수상…孫수현 ▲市內 京기高等學校

◎우수상…선義子 ▲市內 東丘女子商業高等學校

◎우수상…李春善 ▲市內 東國大學校

◎우수상…孫수현 ▲市內 京기高等學校

◎우수상…선義子 ▲市內 東丘女子商業高等學校

學術論文當選者發表

「大昌高」全聲煥君

學會長選擧에 期待

學會長選擧는 學校當局에서 今明間 各學會任員들과함께 곧 發表할것인바이번 九二年度 學徒護國團任員改選은 完了되는것이며 新任員들의健全한 自治活動이 期待되고있다

懸賞論文을 募集

議會評論社에서는 創刊四주년을 記念하기爲 議會評論社에서 全國大學生들의論文을 현상모집중이다 同社에서 모집중인論文의 後보性을 克服하는 論題는 「民主政治 韓國自立 經濟確立의方案(經濟)」 「現代思潮에 입각한社會政敎樹立의 方向(文化)」이라고하는바 十一月號까지 連載한다

在學生懸賞論文募集

本校 政治學會에서

本校 政治學會녁 독書季節을 마지하여 在學生들의 학구열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要領으로 政治學현상 論文을 모집하고있다

▲提出期間=自十月五日=至十月二十日

▲題目=自由題 (△二〇〇字原고低六十枚內外

▲審査委員=신基珍、金성達 金基洙 金雲泰 卓上時計一個 二等(一名) 政治學辭典 三等(一名)

▲審査發表=十月二十五日(東大時報게시판)

▲시상=一等(一名) 學生用가죽가방(一個) 其他 奬勵상(三名) 國語辭典各一冊

施設管理에最善을다하도록

社說

近者에있어 校內에서는 從前에 있지 않았던 해괴한 事故가 連發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大강당 및 宿直室 화재事件과 科學館實驗器具 분실事件은 學園內에서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도 크게 報道되어 世上의이목을 끌던 바 기드문 事件은 學校建設資材의 도난防止를 爲한 監視員이 使用할온돌방을 들이고있던중 방고래를 말리려고 땐 불의 過熟로 因하여 발화하게 된것이었다.

多幸히 假建築을 進行하던當該宿直室 一棟만을 태우고 진화하여 큰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생각하여보면 그 화재는 大단치 않은 不注意에 因한것으로서 施設管理精神에 關한 一種의 解魂"態를 反映하고 있는것이라고 할수있다.

온돌을 들이기 爲한 불화는 때때로 그 過程을 살피며 不注意하고 있어야 한다는일은 한낱 常識에 屬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當日의 監視員은 불을 때 놓은채 잠을 자고 있었다하니 무슨 事故가 나지않을수 없는 狀況이었다고 말할수밖에 없는것이다. 監視員들은 젊은學生들인 까닭에 그러한 常識에 屬하는 些少한 注意 조차 하지를못할程度로, 無經驗 無思慮하였다면 적어도當日의 學校側의 宿直者만이라도 宜當한 유의를 하였던들 그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科學館實驗器材 도난사건의경위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奇怪하다 하지않을수없다. 傳하는바에 依하면 체포된 犯人은 가짜 學生이었다고 한다. 犯人은 本校生을 가장하여 강의에 出席하며 實驗에 參加하였다는것이다. 이런機會에 科學館內部의 構造를 세밀히 알아두며 實驗器材의 所在를 탐지하여 巧妙한 方法으로 이를 절취하기에 이른 것이라 한다 여기서 우리가 重大한 의문을 품지않을수 없는것은 어찌하여 犯人이 學生을 가장하며 實驗에까지 參加할수 있게되었는가 하는 點이다 대학교의 校舍하고 實驗에 參加하는 것은 대학교의 校舍하고 實驗에 參加하는 것은 대학교의 校舍하고 實驗에 參加하는 것은

豫言과 論理

하나의 歷史哲學課題로서

韓相璉

豫言은 어떻게 하여 可能한가? 또는 可能하지않은가? 그리고 可能하다면 어떠한 理由에서이며 또可能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떠한 理論바탕에서 그러한것인가? 하는것이 내가 여기서 생각하려는 課題이다

× × × ×

豫言과 形而上學的推理에서

論理

歸納、演繹的推理에서

論理

(前號續)

二·낭만파전기의 시

여기서도 먼저 「낭만파」의 「낭만」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를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 물론 낭만주의(浪漫主義)란 것은 서양의 「로맨티시즘(Romanticism)」의 번역어로 그것과 「고전주의(古典主義)」에 반대해서 일어난 서양의 한개의 문예사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로맨티시즘」이란 명칭이 성립된 것을 「로맨틱(Romantic)」이란 말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불란서어·스페인어·이태리어」 즉 고대 라틴어로 부터 파생되어온 말들이다. 말은 중세(中世) 기사(騎士)들의 무용연애담(무용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기사들은 크고 이상(理想) 과 정의(正義)를 목표로해서 세상에 불의(不義)가 일어나면 그의 정의를 휘둘러 불의의 칼을 쳐서 없애버리고는 그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로맨틱」은 「로맨틱 기사의 정신」이란 말로 불리워진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정신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때에야 비로서 이 정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그 시대의 사회에 있어서 그 시대의 사회에 있어서 그 시대의 사회에 있어서

道義教育

論

—道義教育頹廢의意義와 새로운道義에의志向—

金 秉 圭

對에道義이같과흘오는 時는되潮高이論여 우다이것을없는 代는이運命的인 重壓을받고있지않았던가 解放後 이運命 現社會는 確實히 道義 人育을 强조하는 時 代인 青少年들의 不良化 傾向과 되돼의인 社會相에對해서 어떠한 사람도 그 必要를 認 定치 않는 그 사람은 없 을것이다 어떠한 社會 인지라도 無道義로 存 立할수없는 것이다 그 러함에도不拘하고 解 放以來 道義라는지 義敎育이라고 하는것은 一種의 금물과같이 사 람을 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 오지 않았던가 우리나 라가 解放되고서는 自 由라는 것은 마치 無道 義라고 마찬가진양 생각 해온 것이다우리나라가 再建途에있어서 절如되 어있는것은 根本的意 味에 있어서 實로 이 道義의側面이라 아니할 수 없다

解放後 두차례에 걸 친 事변을 우리 社會 를 황폐케 하고 그때 를아낭어 우리나라가再 建된다는 것은 決코容 易한것은 아니었다 이 것은 國民 全體가성實 하고도 能率的인 協力 과 내조를 必要로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事 實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못했던것이다 시 모든國民들로 하여 금 幸福을 增進시키는 結實을 가져오지 못했 던 것이다 이러한 現 社會의 惡敗에서 된수있는 대로 그 東방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면서도 벗 어날수 없는 運命的인 重壓을 받고 있지 않았던가 解放後 이運命 的인 東방으로부터 우 리나라 사람은 自由의 몸이되자 民主主義社會 에 있어서 自由를 充 分히 理解할 겨를도없 이 放종的行爲를 敢行 하고 있는 사람도 많 다 거기서 오늘날의無 道義 不道德의 세상을 낳게한 第二의 理由라 고 생각된다

道義의 퇴廢는 이外 에도 그 理由들을수있 겠지만 主로 以上의두 가지 即 民生의 不安 定과 道義 그것에서忌 避하는것으로 생 각된다

大體로 道義라고 하는것은 그 具體的 形 態에 있어서 그것이成 立되는 社會와 分리해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解放前의 道義는 그當時의 社會 全體制 에 適應해 있었는것이며 그위에 입각한道 義思想은 市民社會體制 資本主義社會 그것 과같이 이미 批判과修 正을 求하게 되는것이다 道義는 局에 있어서 비人間的인 生活事態를 改善한 生活事態를 改善하는 것이다 그것은 今日 이 그 社會에는 그 얼마나많 을것이랴

第二의 퇴廢原因은 「道義」그것에 求하게되는 것이다 道義라고하 時代에 맞는 새로운道 義에 志向하게되는것이 다 새로운 道義를 志 向하다는것은 새로운 社會觀을 求하는데 있다 解放前에 家 族的社會 或은 家族制 度를 基반으로한데 對 하여 새로운 社會는國 民各自를 尊重하고 그自由를 認 定하는 市民社會의 思 考에 立각한것이라야하 고 그것으로 보아前 의 縱的인 종關係를 보다도 一流行을 따라변 한 세상에 잘 處 應하기 爲해서는 僞장 意義를 發見함으로서그 것에 熱情的인 心혈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그 일에 到인 報수로 一 家族의 生計를 維持하 지못해 을 뿐만아니라自 己의 말는바 일을持속 해 나가기도 困難했었 다 이와같이 希 望的인 生活 大韓民國 이 獨立國이 되었다 할지라도 物品 이 氾濫할지라도 高層 建物이 즐비하게 建축 되어도 안서말한 點을 그것 만에 부친다면 그것 은 眞實한 意味에 있 立되는 社會와 分리해 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解放前의 道義는 그 具體的인 形態에 있어서 그것이成

寫眞展 (2) 白鳥 國文科 權泰鎬

PLUS X. Vividol 現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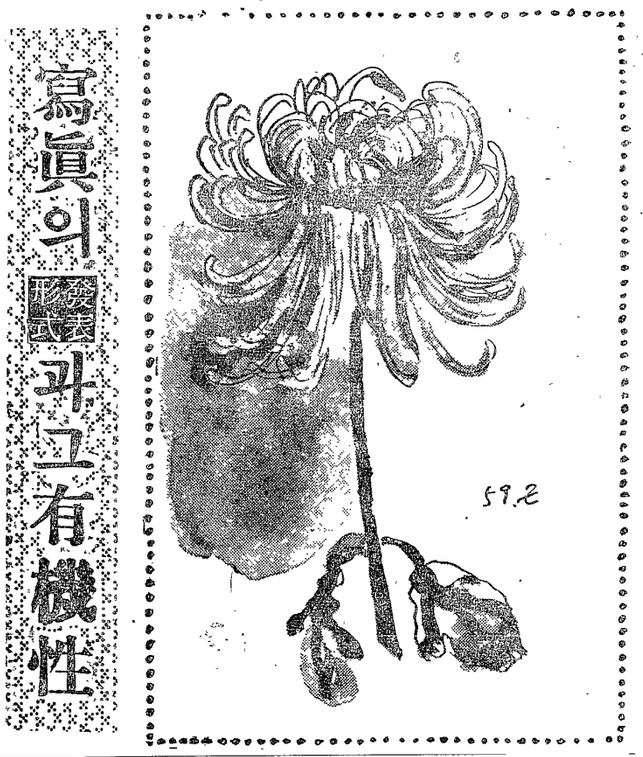
T 1/50 f.11 Fill pax camera F3.5

寫眞의 發表形式과 그 有機性

東大時報寫眞展을다시設置함에際하여

國文科 三年 權泰鎬

예술의 意義가 事物과 사실의 재현에있음은 너무나 常識的인이야기갈지만 往往예술作品의 깊이나 넓이에對한 問題나 예술人의 表現의 方式이나 角度에있어서는 어느것이 옳고 어느것이 그르다고 斷定할수는 없다 이斷定할수 없는 예술論은時代의 변천과 아울러現今에 이르기까지 各自各人이 서로갑론을박의 是非로 始終하였고 따라서 그間의 批評과主義주관의 각축은 그것이 큼에따라 피비린내나는 투쟁은 더컸으며 그것이 넓음에따라 一朝一夕에 全世界를 風미할수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歷史上으로 우리는 하나의 思潮로서 살고 또하나의 思潮를 배척함으로서 새로운發展에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見地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寫壇을볼때 그것이 비록발전 랭동이므로그 아기적인 事情은 展示發表의 形式이 그中心이 되여있는데 그것은 기형적인 형상이 아닐수없다 本來 寫眞이란 갖는 的 効果와 그存在的役割은 다른 特異하고 또 重要한 作品活動이 微微하나만큼 宿命的으로 印刷에 依하여 大衆에게 分布되여야할 性質의 藝術이라고 생각



寫眞은 「데코드」라마찬가지로 大量生産이可能하다는 特權을 가지고있다「하이 화이」을 藝術品에 依하여 餘白作家의 病的인 現象을 打開할 努力을 發揮하고 印刷가되면 必然的으로 韓國에서도 本格的 可能하게 된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카메라」는 奢侈品 이미 非常한 高價 그러나 우리나라 寫眞界의 形便은 이와反 文明國家에서 그것은 生活必需